

‘프로 3년차’ KBO 리그 슈퍼스타 등극한 ‘야구 천재’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7> 내야수 김도영

“팀에 폐를 끼치지 않게 더 열심히 뛰었어요. 타격에서 좋지 못했지만 중점을 뒀던 수비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김도영은 올시즌 KBO 리그의 판도를 뒤엎었다. 연일 대기록을 생산하며 존재감을 과시했고 KIA타이거즈의 열두번째 우승 중심에 우뚝 섰다. 프로 3년 차임이 믿기지 않는 활약에 팬들은 김도영에게 ‘슈퍼스타’ 그리고 ‘야구 천재’라는 호칭으로 극찬을 보냈다.

올해 정규시즌 141경기를 소화한 김도영은 타율 0.347(544타수 189안타),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 출루율 0.420, 장타율 0.647을 기록했다. 득점·장타율 1위, 홈런 2위, 타율·안타·출루율 3위, 도루 6위, 타점 공동 7위 등 공격 부문에서 모두 TOP 10에 진입했다.

특히 득점왕과 장타율왕, 두 개의 기록상을 거머쥐며 올 시즌 KBO 리그에서 유일한 멀티 타이틀 홀더가 됐다. 3년 만에 처음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임이 믿기지 않을 만큼의 괴력이었다.

대기록 행진 역시 김도영의 괴력을 대변한다. 김도영은 지난 4월 KBO 리그 사상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를 시작으로 6월에는 전반기를 마치기도 전에 20홈런-20도루를 완성했다.

후반기에는 KBO 리그 역대 최연소·최소 타석 내추럴 히트 포 더 사이클(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대로 기록)과 최연소·최소 경기 100득점과 30홈런-30

정규시즌서 대기록 퍼레이드 MVP 경쟁 상대 사실상 전무 한국시리즈서는 무결점 수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

도루, 최연소 100타점-100득점, 타이거즈 사상 최초 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 등을 써내려갔다.

특히 김도영이 올 시즌 생산한 143득점은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이자 아시아 프로야구 사상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이다. 1950년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 리그의 고즈루 마코토(쇼치쿠로빈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 김도영은 기록 행진의 피날레를 3할 타율과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퀀터플 트리플’로 장식했다. KBO 리그에서는 박재홍과 에릭 테임즈 단 두 명, 메이저리그에서도 19명 밖에 갖지 못한 고난도의 기록이었다.

이같은 활약으로 김도영은 정규시즌 MVP 후보로 올라 제임스 네일과 정해영(이상 KIA), 원태인(삼성), 객빈, 조수행(두산), 박영현(KT), 노경은, 길레르모 에레디아(SSG), 카일 하트, 맷 데이비스(NC), 오스틴 딘, 홍창기(LG), 빅터 레이에스(롯데) 등 타이틀 홀더들과 경쟁한다.

정규시즌 MVP 후보 중 김도영이 가장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데다 팀도 정상에 올라 경쟁 상대가 없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김도영이 정규시즌 MVP 트로피에 ‘김도영’까지 새겨졌다는 말도 나온다.

김도영에게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도영의 유일한 약점은 수비였다. 올 시즌 30개의 실책을 범했고 KIA는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46개를 기록했다. 경기당 평균 1.0개를 넘는 수치였다.

김도영도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KIA 코칭스태프는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내야수들의 수비 강화에 집중했고, 김도영 스스로도 폐 끼치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내놨다.

그리고 김도영은 다짐을 실현했다. 한국시리즈 다섯 경기에 모두 나서 타율 0.235(17타수 4안타), 1홈런, 1도루, 5타점, 3득점으로 타격에서는 아쉬움을 안겼지만 무실책 경기를 펼치며 통합 우승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빠른 속도나 깊숙한 타구도 완벽히 처리하며 180도 달라진 수비를 선보였다.

김도영은 우승을 확정 지은 뒤 “행복하다. 우여곡절이 많았기에 더 행복하다”며 “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더 집중했고,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승으로 힘들었던 순간이 모두 날아간 기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우리는 충분히 왕조를 구축할 수 있다. 올해도 선수들이 계속 빠졌음에도 선두를 지켰다”며 “그만큼 다른 선수들이 제 몫을 충실히 해낸 것이다. 내년에도 우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지난달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2차전 2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월 솔로포를 터트린 뒤 베이스를 돌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광주도시공사 김지현·서아루·정현희 국가대표 발탁

여성핸드볼선수권 대비 훈련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김지현과 서아루, 정현희가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대비 훈련에 돌입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대비 훈련이 시작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비 훈련에는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계정 삼척시청 감독을 필

두로 선수 18명이 소집됐다.

광주도시공사에서는 레프트백 김지현과 레프트윙 서아루, 라이트백 정현희가 부름을 받았다.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던 광주도시공사는 7연속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대표팀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한국은 다음 달 1일 결전지인 인도로 출국해 실전을 준비한다. 제20회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이란,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홍콩 등 8개 국이 출전한다.

한규빈 기자

내일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마당

광주시 광산구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 행사는 다양한 부대 행사와 경품, 시상품까지 마련돼 더욱 풍성하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13일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과 하남그린파크골프장에서 ‘제3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마당’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마당은 광산구 내 장애인 종사자와 이용자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함께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매년 참여자가 확대되고 있

으며 종사자와 이용자, 내빈 등 900여명 규모로 개최된다.

이번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마당은 참가자들이 직접 꾸미고 즐기는 입장식을 시작으로 특별 공연, 후원 전달식, 감사패 증정, 마술 공연 등으로 꾸러진 개회식 행사가 진행된다.

본행사는 상생·혁신·소통·화합 등 4개 팀으로 나눠 공 굴리기와 바구니 옮기기 등 팀 대항전과 기관 대항전, 휠체어 경기 등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며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도 함께 열린다.

이와 함께 네일 아트, 헤어피스, 타투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한규빈 기자

전남드래곤즈 플라카, K리그2 39라운드 MVP

전남, 베스트 팀 등극 ‘겹겹사’ 발디비아·최원철·류원우 베스트 11



올 시즌 정규 라운드 최종전에서 멀티골을 터트리며 전남드래곤즈의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끈 공격수 유로쥬 플라카가 하나은행 K리그2 2024 39라운드 MVP에 등극했다.

플라카는 1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이번 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플라카는 지난 9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FC와 원정 경기에서 전남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이날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홀로 투입된 플라카는 전반 10분 김용환의 패스가 등 뒤로 휘어 들어오자 수비의 견제를 이겨낸 뒤 문정인 골키퍼 다리 사이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트렸다.

이어 2-0으로 앞선 전반 32분에는 조지훈이 중원에서 길게 투입한 패스를 문정인 골키퍼가 골대를 비우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감각적으로 높이 띄워 넣으며 멀티골을 완성했다.

플라카의 활약으로 전남은 2연승, 3경기 무패를 달리며 올 시즌 정규 라운드를 16승 9무 11패(승점 57), 4위로 마무리했다. 4위에 오른 전남은 1부리그 승격을 향한 첫 관문인 준플레이오프를 안방에서 치르게 됐고, 오는 21일 오후 7시 광양축



전남드래곤즈 유로쥬 플라카가 지난 9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FC와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트린 뒤 김용환의 축하를 받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구전용구장으로 5위 부산아이파크(16승 8무 12패·승점 56)를 불러들인다.

전남은 이번 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 전남은 플라카의 멀티골에 발디비아와 박태용의 득점을 더하며 네 골을 몰아쳤고,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

또 발디비아와 최원철, 류원우는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의 2선 중앙 자원으로 선발 투입된 발디비아는 전반 29분 중원 혼전 상황에서 김용환이 공을 빼내자 환상적인 중거리슛으로 연결하며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책임졌다.

전남의 3선을 홀로 책임진 최원철과 골문을 지킨 류원우는 서울이랜드의 슈팅 16개와 유효슈팅 4개를 모두 무력화하는 등 탄탄한 수비를 구축하며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한편 연맹은 플라카와 최원철, 류원우를 비롯해 공격수 루이스 미나(김포FC)와 주닝요 로차(충남아산FC), 미드필더 호세 데니손 실바(충남아산FC)와 라마스, 페신(이상 부산아이파크), 수비수 황기욱(충남아산FC)과 코너 채프만(김포FC)을 베스트 11에 각각 선정했다.

한규빈 기자